

Vol. 27

주간

# 농업농촌동향

2016. 07. 04.

## ■ 농정이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등

## ■ 정책브리핑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 연구지원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등

## ■ 현장여론

농촌지역 가족농 경영 실태



대외협력실

##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 승인, 6.29.]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추진, 85천 ha 변경·해제 예정(변경 28, 해제 57)
  - ICT·B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6차산업화 등 농업구조 변화에 맞춘 농촌 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건의 분석 및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정비 추진
  - (변경)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 ※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 (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즉시 해제
    - ※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등
  - (활용방안) △변경지역...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추가 허용, △해제지역...6차산업시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조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미적용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가능

자료: 농촌여성신문·뉴스1·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2016.06.30.)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뒷받침」(2016.06.29.)

### 농작물재해보험(벼 상품) 가입 증가

- [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결과 발표, 6.28.] 총 106,382호 농가, 246,825ha 면적 가입,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 95%, 가입 면적 79% 증가

#### 〈벼 농작물재해보험〉

- 보장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병해충)
- 보장손해: 이앙·직파불능, 재이앙·재직파보장, 경작불능, 수확감소, 병해충,
- 보장예시: 충남 서산시에서 1ha를 자기부담비율 20%로 가입할 경우, 보장금액은 943만원이고, 농가가 보험료 6만원을 부담할 경우, 재해로 50% 피해시 283만원, 70% 피해시 472만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㉔ 농정이슈

- 신규가입자 62% 차지, 70세 이상 농가의 가입면적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에 대해 인식이 낮았던 농가 대폭 가입
- 보장금액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 증가
- (가입 증가 이유) △미이양보장 도입, 농지원부 의무제출 폐지 등 농가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 개선, △정부지자체·지역농협의 협업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을 통한 홍보
- 농식품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가입이 필수적”

자료: NSP통신뉴스시스전라일보전북일보(2016.06.28.) / 파이낸셜뉴스(2016.06.29.) / 농촌여성신문동아일보불교공뉴스(2016.06.30.)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벼 보험 가입, 247천ha, '15년보다 약 11만ha 증가」(2016.06.28.)

## ㉕ 면세유 관리강화 및 판매가격 투명화

- [농식품부,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6.23.]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 위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 지속 제기\*되어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으로 판매가격 투명화 추진

※ 일부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이상의 폭리 취한 것으로 나타나(아주경제, 2016.06.13.)

- △면세유 배정 분기별 관리통해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 표기)하여 가격의 투명성 제고
- ※ 일부 농가 배정받은 면세유를 개인소유로 생각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 부정사용

자료: KBS SBS 국제신문뉴스1·뉴스2서울경제세계일보산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이투데이전업농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TV(2016.06.23.) / 농촌여성신문세정신문투데이에너지한국농어민신문(2016.06.24.) / 국제뉴스대전투데이전민일보계민일보(2016.06.26.) / 안동MBC의학신문(2016.06.27.)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업용 면세유 관리강화 및 판매가격 투명화」(2016.06.23.)

## ㉖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

-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 추진 예정, 7.1.]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판로 확보 어려움 이겨내고 산업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큰 도움될 것
-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으로 대상 한정

※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 가능

## ㉔ 농정이슈

- (납부금액) 10a당 유기 논 4천 원(무농약 3천 원), 유기 밭 5천 원(무농약 4천 원)거출 계획,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 원으로 설정, 운영
  - 금년 약 20억 원, 향후 연 40~50억 원 규모 자조금 조성하여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 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
- 자료: 경매일신문·브릿지경제·아시아뉴스통신(2016.06.28.) / BBS NEWS뉴스웨이뉴스·메디컬투데이·아시아투데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TV(2016.06.29.)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7월 1일 출범」(2016.06.28.)

## ㉕ 기후변화로 쌀 생산성 감소

- [농진청, 기후변화에 따른 쌀 생산 변화 예측 결과 발표, 6.29.] 국가간패널 (IPCC) 5차 보고서와 기상청 RCP 8.5\* 시나리오 기반 제작
    - ※ RCP8.5(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 2100년 이산화탄소가 940ppm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지구 기온변화 시나리오
  - 2040년대 13.6%, 2060년대 22.2%, 2090년대 40.1% 감소 전망
  - 고온적응 벼 품종, 이앙시기, 시비법 등 재배법 개발에 총력
  - 2090년대에는 강원도가 27.4%로 감소폭 가장 낮고, 충남이 44%로 감소폭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자료: 경인일보·농촌여성신문·뉴스1·뉴스연합뉴스·새전북신문·서울경제·이데일리·전라일보·중부일보·충북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6.06.29.) / 경기신문·광림신문·대전일보·소플리에타임즈·전남농신문·쿠기뉴스(2016.06.30.)  
참고: 농촌진흥청 보도자료\_「기후변화로 2040년대 쌀 생산성 13.6% 줄어든다」(2016.06.29.)

## ㉖ 글로벌 K-Food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농식품부, “글로벌 K-Food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발족식 개최, 6.27.] 청년 고용문제 해결, 농식품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확대·창출
    - 10개국\* 현지 기업에 16명 청년 파견, 항공료·체재비 일부 등 지원
      - ※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 해외기업과 한국인재 매칭 통해 미래 글로벌 일자리 잠재 수요 확보
- 자료: 국제뉴스뉴스·소플리에타임즈·환경미디어·환경일보(2016.06.28.)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식품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선다」(2016.06.27.)

## ㉔ 농정이슈

### □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 확대 시행, 7.1.] 전국 11개 응급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 대상
  - ※ 기존 7개 응급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
  - 농어촌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원격 호출 > CT 등 영상, 음성, **진료기록 실시간 공유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자문 받아 응급환자 진료 가능**
  - 기존 협진 시스템 이용 시 접속 절차 번거로워 실제 활용도 낮다는 의견 제기되어, **접속절차 최소화 및 스마트폰 앱 협진 등 시스템 개선 추진**
  - 농어촌 응급의료 원격협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공보의 배치, 간호사 파견 등의 다각적인 지원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

자료: 농촌여성신문-데일리메디데일리팜동양일보-디지털타임스-라포르시안-매일경제-머니투데이-메이칼업저버-메디칼트리뷴-메디컬타임즈-메디컬투데이-메디파나뉴스-아시아투데이-약사공론-연합뉴스-의학신문-의협신문-청년 의사포커스뉴스(2016.06.30.)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_「농어촌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전국 11개 응급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확대 시행」(2016.06.30.)

### □ 수입쌀 사료화 관련 동향

- [농민신문, 수입쌀 사료화 관련 보도, 6.27.] 지난해 관세화 전환으로 외국산 쌀의 용도 **규정 없어져**, 수입된 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수출국은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 농식품부, 미국 농무부 차관보에게 **'수입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계획' 입장 전달**
  - '04년 쌀 재협상 당시 '수입쌀에 대해 국내 시장 유통 패턴 반영해야 한다' 규정으로 인해 **국산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수입쌀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12년산 국내용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관세화 이전 도입된 수입쌀도 사료용 사용 가능해진 것으로 농식품부 판단**
  - 정부 보유 수입쌀은 약 46만 톤(정부 재고 25%)으로 국내 쌀 수급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

자료: 농민신문(2016.06.27.)

## ㉔ 농정이슈

### □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공방

-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관련 공방, 6.27.] 여야 모두 입법 취지와 필요성 공감하나 경제적 효과와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 대립
  - 농식품부…△김영란법 개정 요구 검토 의견 국민권익위에 제출, 김영란법이 정부가 시장개방에 대응해 추진해온 농축산물 고급화 정책과 상충, △농축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 주장, 제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금액기준 상향\*, 시행 시기 조정, 적용대상 금액 차등 필요
    - ※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 국민권익위…농축산물 제외 등 농식품부 공식 요청은 수용 불가,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 데이터 없다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새누리 김성원 의원…법 시행시 연간 11조 6,000억 원 경제적 손실 예상, 편법 발생 우려도, △더민주 민병두 의원…애초부터 가액의 문제, 현실화는 대통령 판단으로 풀어야 할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제단체나 정부 수장이 나서 김영란법 흔드는 것이 안타깝다, 권익위원장이 적극 나서서 지켜야

자료: BBSKNS뉴스통신경제신문·경북매일신문·광주일보·뉴스·대전일보·메트로신문·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 뉴스울산종합일보인간NTN헤럴드경제(2016.06.27.) / JTBC·YTN국민일보·동아일보·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2016.06.28.)

### □ 제주도 양돈농가 돼지열병 발생

- [농식품부,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검출 발표, 6.28.] 제주도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
  - ※ 돼지열병: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율(80%이상)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 접종없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으나, 이번에 최초 발생
  -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 제주도청 관련 공동브리핑 실시…바이러스 양성반응이나 증세 보이는 돼지는 없음, 확산 가능성 높지 않고 발병 초기인 만큼 차단 방역 빠른 시일 내 종식될 것

자료: JTBC·MENSES·YTN·국제뉴스·뉴스·뉴스시스·제주아주경제연합뉴스·제민일보·제주도민일보·제주신보·제주의 소리·쿠키뉴스·한라일보·헤드라인제주·환경일보(2016.06.30.)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제주도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발생」(2016.06.29.)

## ㉔ 농정이슈

### □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 [농식품부,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6.27.] 농촌지역 관광명소 활용하여 목장, 휴양림 등으로 구성

#### ▮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

지역	관광코스
경 기	유명산→물미연꽃 마을→남이섬
강 원	어름치마을→백룡동굴→칠죽령→민물고기생태관→청옥산깨비마을→청옥산→동막골영화세트장
	아라리촌→정선5일장→아리힐스→개미들마을→화암동굴→화암약수터→사북석탄역사체험관
충 북	한지체험박물관→쌍곡계곡→둔을을갱이마을→산막이옛길→성불산→빛과소금테마파크
충 남	쌈지촌마을→공룡발자국화석→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충청수영성→오천항
전 북	호롱불마을→반디랜드→태권도원→라제통문→덕유산리조트→머루와인동굴
전 남	백학동마을→어치계곡→구시폭포(백운산)→역불봉
경 북	천지갑산휴양마을→소태나무→용담사→길안천→묵계서원→만휴정
경 남	학동자동차야영장→삼거동 농촌체험휴양마을→씨라인→맹종죽테마공원(짚라인)
제 주	청수곶자왓→피자굽는돌하르방→청수리마을→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가마오름→돌하르방캠핑장

자료: KTV국민방송경인일보국민일보메디컬투데이서울경제제민일보한국경제(2016.06.27.) / 강원신문(2016.06.28.)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2016.06.27.)

## 정책브리핑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6.06.28.)

### ☐ 주요내용

- [정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구조개혁 가속화로 **우리경제 일자리 창출능력 근본적 제고**
-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 최소화, **추경 포함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 (구조개혁 가속화) 4대 구조개혁\* **완수 및 산업개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부문
  -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국제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 농업인 관련 정책
  - (인력부족 완화) 도시인력 활용 영농작업반 운영
  - (인프라 확충)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추진
  - (용지구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하여 6차산업, 뉴스테이부지 등으로 활용

### ☐ 2016년 상세 경제전망

- (실질 성장률) **연 2.8% 성장 예상**, 재정통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15년보다 개선
- (민간소비) 저유가·저금리 여건, 임금상승 본격화 등 **양호한 소득요건 지속**되며 '15년과 유사한 회복세 예상으로 **2.2% 성장 전망**
- (소비자물가) **연간 1.1% 상승** 예상으로 저물가 흐름 지속 전망  
※ 농축수산물물은 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상승세 둔화되겠으나 **한우 사육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격상승은 불안요인**

# 연구지원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통계청(2016.06.30.)

## 주요내용

- [귀농가구] 11,959가구, 전년 대비 1,201가구 증가(11.2% ↑)
  - 시도별...경북(2,221가구) > 전남(1,869) > 경남(1,612) 순
  - 연령대...50대(40.3%) > 60대(24.4) > 40대(20.0) 순
  - 2인 이하 귀농가구가 83.8%로 대다수 차지, 전년 대비 0.2%p 증가

### 귀농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15년	'14년	증 감	증감률
귀농가구수	11,959	10,758	1,201	11.2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1.66	1.67	-0.01	

### 귀농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p, 세)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평균연령
'15년	11,959 (100.0)	1,150 (9.6)	2,395 (20.0)	4,816 (40.3)	2,921 (24.4)	677 (5.7)	54.0
'14년	10,758 (100.0)	1,110 (10.3)	2,393 (22.2)	4,301 (40.0)	2,332 (21.7)	622 (5.8)	53.4
증감	1,201 (0.0)	40 (-0.7)	2 (-2.2)	515 (0.3)	589 (2.7)	55 (-0.1)	0.6
증감률	11.2	3.6	0.1	12.0	25.3	8.8	

### 귀농가구원수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가구, %, %p)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15년	11,959 (100.0)	7,176 (60.0)	2,852 (23.8)	1,045 (8.7)	886 (7.4)
'14년	10,758 (100.0)	6,474 (60.2)	2,515 (23.4)	875 (8.1)	894 (8.3)
증감	1,201 (0.0)	702 (-0.2)	337 (0.4)	170 (0.6)	-8 (-0.9)
증감률	11.2	10.8	13.4	19.4	-0.9

## ㉔ 연구지원

### ○ 귀농가구 작물재배면적 및 농지임차재배작물 현황

- (재배면적) 평균 재배면적 0.45ha, 전년 대비 0.002ha 감소
- (귀농가구 구성비) 0.5ha 미만(75.3%)이 대다수

#### ▮ 작물재배면적규모별 귀농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 %p, m<sup>2</sup>)

구분	작물재배 귀농가구수	평균재배면적	0.5ha미만	0.5~1.0ha 미만	1.0~2.0ha미 만	2.0ha이상
'15년	7,100	4,495	5,349	1,193	420	138
	(100.0)		(75.3)	(16.8)	(5.9)	(1.9)
'14년	5,910	4,518	4,411	1,018	367	114
	(100.0)		(74.6)	(17.2)	(6.2)	(1.9)
증감	1,190	-23	938	175	53	24
	(0.0)		(0.7)	(-0.4)	(-0.3)	(0.0)

- (재배작물) 채소(42.5) > 과수(33.6) > 특용작물(29.7) > 논벼(25.4) 순

#### ▮ 재배작물별 귀농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 %p, m<sup>2</sup>)

연도	구분	작물재배 귀농가구수	논벼	맥류	서류	두류	채소	화훼	특용	과수	기타
'15년	가구수	7,100	1,802	607	1,028	1,446	3,016	152	2,112	2,387	356
		(100.0)	(25.4)	(8.5)	(14.5)	(20.4)	(42.5)	(2.1)	(29.7)	(33.6)	(5.0)
	평균 재배면적	4,495	4,022	1,736	1,136	1,319	2,242	2,168	1,847	3,460	3,618
'14년	가구수	5,910	1,336	446	861	1,588	2,604	121	1,694	1,995	257
		(100.0)	(22.6)	(7.5)	(14.6)	(26.9)	(44.1)	(2.0)	(28.7)	(33.8)	(4.3)
	평균 재배면적	4,518	4,024	1,493	1,086	1,680	2,137	1,728	1,831	3,659	3,418
증감	가구수	1,190	466	161	167	-142	412	31	418	392	99
		(0.0)	(2.8)	(1.0)	(-0.1)	(-6.5)	(-1.6)	(0.1)	(1.0)	(-0.2)	(0.7)
	평균 재배면적	-23	-2	243	50	-361	105	440	16	-199	200

## 2016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6.06.29.)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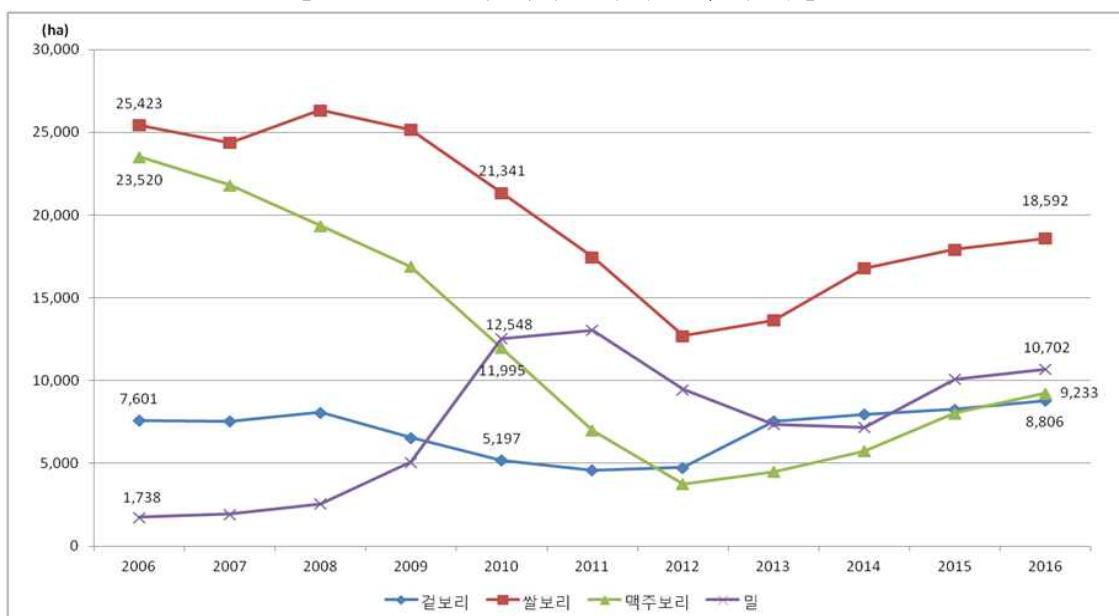
- [보리(맥류) 재배면적] 47,333ha, 전년 대비 6.9% ↑
  - 겨울철 유휴지 이용률 향상 및 보리경작 장려에 따른 정부정책 영향
  - 전년 대비 겉보리 6.6%(548ha), 쌀보리 3.7%(664ha), 맥주보리 15.0%(1,203ha), 밀 6.2%(626ha) 모든 맥류가 증가

### 보리(맥류) 재배면적 조사 결과

(단위: ha, %)

	'14년	'15년 (A)	'16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 보리(맥류)	37,669	44,292	47,333	3,041	6.9
겉보리	7,974	8,258	8,806	548	6.6
쌀보리	16,783	17,928	18,592	664	3.7
맥주보리	5,732	8,030	9,233	1,203	15.0
밀	7,180	10,076	10,702	626	6.2

### 연도별 보리(맥류) 재배면적 추이



## ㉔ 연구지원

○ [봄감자] 재배면적 15,259ha, 전년 대비 4.9% 증가

- 전년도 봄 가뭄 영향으로 재배면적 감소했으나, 금년에 이전 수준 회복

### ■ 시도별 봄감자 재배면적 ■

(단위: ha, %)

	'14년	'15년 (A)	'16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전 국	15,596	14,545	15,259	714	4.9
서울특별시	7	6	6	-	0.0
부산광역시	22	28	19	-9	-32.1
대구광역시	74	63	118	55	87.3
인천광역시	207	198	166	-32	-16.2
광주광역시	52	14	61	47	335.7
대전광역시	50	50	50	-	0.0
울산광역시	92	57	64	7	12.3
세종특별자치시	-	-	51	51	-
경기도	1,671	1,722	1,869	147	8.5
강원도	1,802	1,781	1,586	-195	-10.9
충청북도	1,494	1,024	1,080	56	5.5
충청남도	2,329	2,135	1,820	-315	-14.8
전라북도	1,071	867	933	66	7.6
전라남도	2,226	1,942	1,855	-87	-4.5
경상북도	2,965	2,818	3,398	580	20.6
경상남도	1,253	1,421	1,573	152	10.7
제주특별자치도	281	419	610	191	45.6

○ [사과] 재배면적 32,409ha, 전년 대비 2.5% 증가

- 사과의 꾸준한 수요와 특화품종의 육성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

### ■ 시도별 사과 재배면적 ■

(단위: ha, %)

	'14년	'15년 (A)	'16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전 국	30,702	31,620	32,409	789	2.5
서울특별시	-	-	-	-	-
부산광역시	1	1	5	4	400.0
대구광역시	78	66	79	13	19.7
인천광역시	23	24	8	-16	-66.7
광주광역시	-	-	2	2	-
대전광역시	5	4	18	14	350.0
울산광역시	3	4	19	15	375.0
세종특별자치시	-	-	14	14	-
경기도	268	330	278	-52	-15.8
강원도	522	721	822	101	14.0
충청북도	3,877	3,984	4,039	55	1.4
충청남도	1,358	1,283	1,547	264	20.6
전라북도	2,078	2,223	2,265	42	1.9
전라남도	308	289	497	208	72.0
경상북도	18,811	19,247	19,648	401	2.1
경상남도	3,370	3,444	3,168	-276	-8.0
제주특별자치도	-	-	-	-	-

## ㉔ KREI리포트 현장여론

○ [배] 재배면적 10,883ha, 전년 대비 14.1% 감소

- 수익성 하락 및 재배농가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 지속

### ■ 시도별 배 재배면적 ■

(단위: ha, %)

	'14년	'15년 (A)	'16년 (B)	증감 (C=B-A)	증감률 (C/A)
전 국	13,127	12,664	10,883	-1,781	-14.1
서울특별시	24	24	13	-11	-45.8
부산광역시	18	12	35	23	191.7
대구광역시	8	3	19	16	533.3
인천광역시	179	164	155	-9	-5.5
광주광역시	49	43	37	-6	-14.0
대전광역시	67	73	129	56	76.7
울산광역시	595	567	541	-26	-4.6
세종특별자치시	-	-	132	132	-
경기도	2,577	2,426	2,257	-169	-7.0
강원도	137	134	156	22	16.4
충청북도	526	502	410	-92	-18.3
충청남도	2,389	2,334	2,020	-314	-13.5
전라북도	617	618	696	78	12.6
전라남도	3,457	3,499	2,408	-1,091	-31.2
경상북도	1,536	1,422	1,236	-186	-13.1
경상남도	935	835	639	-196	-23.5
제주특별자치도	13	8	-	-8	-100.0

## 현장여론

# 농촌지역 가족농 경영 실태

자료: KREI리포터를 대상으로 상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6. 6. 1. ~ 6. 30.(총 30건)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 농촌지역 가족농 경영 실태

- 과거 농촌에서는 대부분 가족형 인력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핵가족화,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농업 후계인력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도시에 나간 가족은 주말에 일손을 도우러 와도 일시적일 뿐 과거와 같은 체계적인 가족농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움. 밭농업의 경우 수확기에 **인력수요가 급증하는데 가족의 노동력, 품앗이 등은 사라지고 치솟은 인건비, 인력 고용의 어려움 등으로 후작을 포기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음.**<정소정, 제주 제주>
- 현재 농촌의 가족 노동력은 미미한 실정임. 70~80년대만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족 수가 평균 7~8명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가족 노동력만으로 충분하게 해결했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한 가정에 부부 둘이 거주하고 젊은 청년층은 인근 농공단지나 일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족농이란 형태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대체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낮은 농산물 가격을 생각하면 인근에 나가 일하는 것이 농업보다 덜 힘들 것이란 생각에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 예상됨.<장석우, 충남 청양>

## ㉔ KREI리porter 현장여론

- 논 1만5천 평과 밭 5천 평을 남편과 단둘의 노동력으로 짓고 있음. **농농업은 기계화율이 높아 비교적 상황이 나아졌으나 밭농업은 기계 이용률이 낮고 수확시기를 안배해 재배하여도 초여름 제초작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음.** 기온도 제멋대로고 짐승들의 극성으로 갈수록 농사일이 힘들어지는데 터무니없는 농산물 값에 창고의 애물단지가 되곤 하는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 바람.<이길숙, 경기 안성>
- 부산 기장은 도시근교에 위치해 농업과 함께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많은 편임. **지역사회 활동으로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농협 대의원,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 바다가 있어 농업과 수산업을 병행하는 사람도 있어 농업에만 치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가족농으로 운영되는 지인의 과수원을 보면 가족들 간에 일이다보니 일이 지체되어 늦어지거나 서툰 부분이 많은 편임. 점점 고령화 되는 현실에 앞으로 가족농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걱정임.<최시훈, 부산 기장>
- 우리 마을은 80여 농가가 있음. 농촌인력 고령화, 높은 인건비 탓에 가족농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 우리 마을을 전수 조사해본 결과 **부부 단둘이 영농하는 호수는 70%, 부부와 자식 간에 함께 영농하는 호수가 20%, 기타 10% 정도로 나타남.** 이들은 공공 근로사업이나 주변 농사일 품앗이, 유통센터의 선별작업, 5일장에서의 판매 등을 도와 부수입을 얻기도 함. **가족농 형태는 앞으로 기업형 구조로 변화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기계화 및 우수종자 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최영호, 충남 부여>
- 현재 농촌에서는 대부분 부모가 하는 농사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족농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가족농의 경우 부모의 영농방식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영농교육을 받아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특히 농촌여성은 마을 일과 봉사활동, 농사, 육아까지 요구되는 역할이 많아 힘든 점이 많음.<김현자, 경남 밀양>
- 농촌은 가족을 중심으로 농업의 맥을 이어왔으나 최근 들어 기계화되고 농촌에 남은 가족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인력수급과 후계인력 육성 문제만이 숙제로 남은 실정임.**<유영조, 강원 영월>
- 우리 마을에서는 **화훼농업의 90% 이상은 부부 두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10%는 자식을 후계인으로 두고 농사를 짓고 있음.** 계속해서 농업인의 연령대는 높아지고 있어 **후계농 육성이 가장 이슈라고 생각됨.** 50대 이전에 농업 진출 시 토지나 시설 지원 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주기 바람.<김경태, 경기 용인>

## ㉔ KREI리포터 현장여론

- 농업을 해서 먹고살기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자식들이 선뜻 농사를 이어 하겠다고 하지 않고 도시로 나가 현재는 나이 든 노부부만이 농업을 이어가고 있음. 주말에 한번 씩 시골로 찾아오는 자식은 손님이 되어 농사일을 돕기보다는 얼굴 한번 마주하고 가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임. **가족 간에 일을 같이 하게 되면 도리어 갈등이 생기는 사례도 많아 가족농은 거의 사라졌다고 봄.**<김용덕, 경기 남양주>
- 우리 가족은 부모 둘, 자식부부 둘, 손자 셋으로 구성되어 손자를 제외한 네 명이 농사에 투입되고 있음. 3ha 면적에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고용 근로자의 책임의식 부족, 지속적인 인건비 지출에 따른 경영비 증가, 가족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 등임. 농수산대학 졸업생 중 3명이 부모와의 의견충돌로 자살한 사례가 있다고 들어 가족농의 경영방식에도 자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계속적인 가족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도 개인 특성을 살린 역할 분담과 그에 맞는 소득보장, 의견 조정 등이 필요할 것임.**<김정오, 경남 거창>
- 최근 가구 구성원이 줄고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고 빈집이 늘어나 정주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임. 일부 규모가 있는 농가는 대물림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금의 농업인이 없어지면 집과 농지 모두 그대로 버려질 상황에 놓임. 귀향, 귀촌, 귀농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모두 60대 이상이니 이 같은 상황은 몇 년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많음. **농촌의 노동력(인구수, 연령, 성비), 가구의 세대별 구성원, 농지규모 등에 따라 맞춤형 영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 우리 마을은 주민의 90% 이상이 당근, 감자, 무 등 단순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약 5% 비중을 차지하는 깻잎 농사와 한우 사육은 일반 농사에 비해 소득이 높은 편임. 수입은 높으나 하우스 시설, 중장비 구입, 축사 마련, 송아지 구입, 초지조성 등의 초기비용 부담이 커 진입이 쉽지 않은 편임.<임영애, 제주 제주>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